

제150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22.10.17.(월) 11:00

☐ 장 소 : 달개비(서울 중구 세종대로19길 16)

☐ 참석자 : 이사 9명, 감사 1명

◦ 이 사 :

◦ 감 사 :

☐ 주요 내용

[안건 심의]

- [제1안건] 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안) : 원안의결
- [제2안건]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 원안의결
- [제3안건]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 원안의결
- [제4안건]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 원안의결
- [제5안건]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 원안의결

☐ 회의록 내용

- :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장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사장님과
이사님, 감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이사회에는 이
사님과 감사님 열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시립대총장 이사님,
서울대 이사님, 서울시 행정국장 이사님 세분은 긴

급한 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셨고, 이사님 대신 인력 개발과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회 성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열한분 중 아홉분이 참석하여 정관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습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연구원 제150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총 5건입니다. 연구원 혁신방안에 따라 조직개편을 시행하기 위한 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안)과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이 있으며, 고용부와 국민권익위 그리고 경영평가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인사·복무·보수규정 일부개정(안)입니다. 정관과 직제규정은 담당 부서장인 연구기획조정본부장이, 인사·복무·보수규정은 경영관리실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첫 번째 안건으로, 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안) 관련 별도 자료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정관 일부개정(안) ----- [제안설명]

- :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서울연구원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방금 본부장께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연구원이 그동안 양적인 면에서는 서울시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의 어젠다 의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

는 환경에서 연구원 연구 어젠다를 발굴하고 의제 선정을 하는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연구실은 학제 간 통폐합을 통해서 연구실 안에서 서로 협업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으며, 지원부서도 연구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있는 측면이 있는데 지원부서 통합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개 센터 신설에 대해서는 도시인프라계획센터의 경우 현재 보통의 연구사업이 1년 이내 수행하고 있지만, 이제는 연구원의 핵심기능이 되는 서울시의 중장기 인프라 등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원의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 개별 연구진 단위가 아닌 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어 다년간 수행하고 자료 또한 축적이 되는 체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도시모니터링센터는 서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팩트 기반의 연구를 수행하고 공유하도록 서울에 대한 개별 모니터링 기능을 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원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유지를 하면서 연구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조직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사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아주 방향을 잘 잡은 것 같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 직속으로 전략연구단을 만들고, 중장기 연구 수행을 위한 2개 센터를 신설 했는데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구실을 통합하고 센터를 새로 만들었는데 조직개편 시 구성원 간 갈등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조정 바랍니다.

○ : 연구실과 센터를 따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 : 부원장 산하의 도시모니터링센터, 도시인프라계획 센터가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궁금합니다.
- : 전략연구단의 경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서울연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의제 어젠다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 요청에 의해서 연구를 따라가는 방향이었다면 전략연구단을 만들어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혹은 연구실 중심의 연구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연구원 중심으로 서울시의 미래 방향을 설정해서 제안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략연구단에 대해 기대감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전략연구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략연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발굴된 의제나 어젠다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문제인데요. 그중 우리 연구원과 관련된 부분은 연구실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연구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10개 기관 정도가 상당한 시정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젠다를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 시 발생하는 구성원 간 갈등 우려 또한 어느 쪽이 주고 어느 쪽이 부가 되는 그런 편중이 아니라 적절하게 안배를 잘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센터와 연구실의 구분과 관련하여 특히 도시인프라계획센터와 공간교통연구실의 경우 연구의 주제 범위는 비슷하지만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실은 1년 이

내의 다양한 과제별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 도시인프라계획센터는 예를 들어 몇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서울의 도시기본계획 및 교통기본계획이라는 서울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을 준비하고 수립하며, 모니터링까지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내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의 성격에 맞추어 부서 구성원도 구분이 되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두 개의 센터를 연구실 산하가 아닌 병렬로 놓은 이유는 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구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부원장님 직속으로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정착이 되면 도시인프라계획센터의 경우 공간교통연구실 소속으로, 도시모니터링센터의 경우 경제사회연구실 산하로 위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연구단은 서울시 의제와 어젠다를 발굴에 관하여 원장 직속으로 놓고 많은 자문위원분들을 모시고 포럼 등을 통해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저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서 이해도가 훨씬 높으며 그래서 큰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조직이 이렇게 크게 묶이다 보면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분명히 적응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 카운터 파트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제 공간과 교통 분야를 구분해서 카운터 파트너로 일을 하다가 이게 이게 묶여지다 보면 한 연구실에서 대응해야 되는 카운터 파트너가 많아지게 되고 의사소통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실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방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서 큰 틀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 : 그동안 조율을 많이 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상 정관 변경할 때는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 절차는 거치셨는지 궁금합니다.
- :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시와 계속 조율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 : 저도 의견 없습니다.
- : 개편되는 경제사회연구실은 과거 시민경제연구실, 도시사회연구실 및 도시경영연구실까지 3개 연구실이 통합된 것이며, 공간교통연구실은 과거 도시공간연구실과 교통시스템연구실 2개 연구실이 통합됐고, 과거 안전환경연구실만 그대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폐합된 연구실이 서울시와 일을 할 때 1대 다 매칭이 되어 카운터 파트너로 어려운 점이 있을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제는 연구실장님들이 행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챙겨야 할 뿐만 아니라 실장님들의 책임과 권한이 조금 더 강화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에 관해서는 연구원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부원장님께서 센터를 맡으시고, 기존에 있는 연구 및 행정기능은 기획조정본부에서 본부장님이 맡으시고, 연구실장 등과 함께 조금 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 문제 또한 리더십을 통해 해결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 사전 보고는 정관 변경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보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9월 26일 시의회 업무 보고 때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를 드렸으며 시의회에서도 의견 없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는 등 조직개편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 :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실 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해서 원장님과 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직 개편 내용을 제시해 주셨는데 조직 개편에 대한 시대적 비전과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사님들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내부 구성원들 간 여러 조정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략연구단을 이제 앞으로 연구원의 큰 방향으로 삼고 구성을 폭넓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러면 두 번째 안건이며 정관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연구원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 [제안설명]
- : 말씀해주셨듯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안)입니다. 이사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직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혹시 원장님 추가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 : 예 조금 전에 부서 통폐합 등은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원장 직속에서 부원장 직속으로 내린 성평등인권센터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평등인권센터는 만들어진 지가 한 4년 정도 됐으며 그동안 관

련된 규정과 사건이 생겼을 때 프로세스 등을 만들어 센터설립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했고 센터의 운영 또한 안정화됐다고 판단되어 부원장 직속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른 연구부서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여러 가지 재정 사업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B/C 분석 및 예비타당성 조사검토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인데 현재 설립 10년이 되었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역시 내부적으로 운영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어 부원장 직속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제개편에 들어있지 않지만 하부조직 관련해서도 행정 조직 팀 개편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 : 혹시 이사님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다만, 어느 조직이든 상징적으로 성평등인권센터를 대부분 기관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능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부원장 직속으로 두면 외부에 비쳐질 때 서울연구원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성평등 및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센터를 두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우리 연구원도 4~5년 전쯤 관련 사건이 있어서 별도의 센터를 두었고, 최근 3년 동안에는 성희롱 관련해서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센터를 없애는 게 아니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원장 직속에서 부원장 직속으로 하여 다른 행장팀과의 원활한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인권센터 내에 별도의 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고충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화됐으니 원장 직속이 아닌 일반적인 조직으로 간다고 선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충분히 고민하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세 번째 안건으로 서울연구원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 [제안설명]
- :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 : 네
- :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네 번째 안건으로 서울연구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 [제안설명]
-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 복무규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노동이사 쪽에서 의견이 있었고, 반영해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 : 노동이사님 충분히 반영 되었습니까?
- : 네
- : 직원이 임신하게 되면 신청을 누구한테 하게 되나요?
- : 일단 인사복지팀에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청할 때 부서장 결재를 통해서 오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조항들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 임신했다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 : 비밀엄수는 퇴직 후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 : 이 부분은 인권위에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저희가 인사규정 안에서 그걸 강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외부 직원들한테 퇴직 후에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 사실 저희가 의견 제시를 통해 조정은 되었지만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서울연구원에서는 포괄임금제를 기초
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17조에 따라서 근무하
는 직원들이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해서 본인이 초과 근무
를 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17조3항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8세 미만 직원은 본인의 업무를 마감하기 위해
5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도 신청을 못하게
되지만 포괄임금으로 주어지는 수당을 다 받게 되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 포괄임금제 관련해서는 관련 이슈를 모두 정리를
해야 하는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 후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다음
이사회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연구원은 근로계약을 할 때 시간외수당을 포함해
서 기본급을 지급한다는 포괄적인 조항을 적용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시간외근무
를 20시간 이상 한 분들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하는 제도를 도
입을 해서 운영하고, 시간외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계약 조건 자체가 포괄 임금이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인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구체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
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
고 판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외수
당을 도입하기 전에 시간외근무에 대한 관리 문제에 있어서 아직
까지 직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되었다고 판단되어 차후 이
사회에 상정을 하려고 조금 미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심의 안건입니다. 서울연구회 보수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 [제안설명]
- : 본 안건에 대해서 의사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3개월 이전도 지급했었나요?
- : 예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 이사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 : 다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성과급을 지급할 때 금년도 성과급은 작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게 되는데요. 다만 작년도에 근무했던 분들이 성과급을 받을 것을 전제로 일을 했던 분들인데 갑자기 올해 성과급을 지급할 때 3개월 미만은 제한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게 안되면 내부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불이익을 보는 직원이 없도록 하되 이 지침은 준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 그런 인원이 많습니까?

○ :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 연구원이 정규직 연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몇 개월 단위로 채용하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채용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이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제도가 바뀜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연구원들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안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속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 추가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과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제150회 임시이사회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록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022. . .

이 사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